

2020년은 승리와 희망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통합이다!

태극기집회 일정 안내
☎ 일정문의 02-761-0815

· 제167차 태극기집회

2020. 1. 18(토)
낮 12시 30분, 부산역 광장(1부)
오후 4시, 경남은행 범일동지점 앞(2부)

· 제168차 태극기집회

2020. 1. 27(월) 낮 12시 30분,
지하철 서울역 4번출구 앞(승례문 방향) 시작

2020년 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1016일째



우리공화당 당원이시면

후원금액에 한도 제한 없음
가장 안전한 후원 (특별당비 후원)
농협 301-0220-4019-91
신한 100-032-436714
예금주 | 우리공화당

당원이 아니시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별 연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
농협 301-0761-0815-21
신한 100-032-436971
예금주 | 우리공화당 중앙당 후원회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입당 불가
별도문의 +82-2-761-0815

문의전화 중앙당 02)761-0815 (* 전 지역 민원 · 문의 접수) 서울시당 02)722-1151 인천시당 032)501-3007 대전시당 042)488-1583
대구시당 053)623-0070 울산시당 052)242-0826 부산시당 051)819-0060 경기도당 031)526-7447 강원도당 033)655-8505
충북도당 043)217-7797 충남도당 041)544-2896 경북도당 053)955-0815 경남도당 055)264-8151 제주도당 064)748-0815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파 국민들은 국민저항권 발동을 위한 우파연대 투쟁에 나서야



▲ 2019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수처 악법 통과에 반대하며 빗속에 모인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모습 (사진=우리공화당 홍보위원회 김정곤 공동위원장)

우리공화당은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이 시작될 때 문재인 정권은 촛불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이고, 좌파독재를 할 것이라고 규정했었습니다. 이해찬 씨나 문재인 씨가 '보수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발언하고, 그것이 차근차근 실현된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경제는 이미 사회주의로 넘어갔고 부정부패 덮기와 정적 제거를 위한 공수처 악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당을 지지하든, '보수 우파가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파 국민들은 분명히 일어나 투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당을 막론하고 우파 태극기를 든 모든 분들이 투쟁의 대열에 함께해야 합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투쟁을 통해 동질감을 찾아야 합니다.

공수처 악법에 반대한 “공수처 악법 반대” 외치며 자결 시도... 우리공화당 당원의 분신자살 시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

우리공화당 당원 안 모 동지(남, 59세)가 30일 오후 7시 10분경, 국회에서 공수처 악법 가결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마자 여의동 국회 앞 근처 주유소 앞 차도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불이 진압된 후 안 모 당원은 영등포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얼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 동지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우리는 그 분의 뜻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분노하고 힘들더라도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은 동지들께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의 중단 없는 투쟁에 전력을 다하되 억울한 희생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좌) 2019년 12월 30일, 좌파독재 공수처 악법이 가결되자 우리공화당원 안 모 동지가 분신자살을 시도한 국회 앞 현장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주관한 제164차 태극기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우) 분신자결 당시 안 모 동지가 입고 있었던 패딩 점퍼, 불길에 탄 자국과 소화기 분말의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우리공화당 홍보위원회 김정곤 공동위원장)

우리공화당 여의도 천막투쟁 종료

2019년 12월 31일 우리공화당 3.10 태극기애국열사 진상규명 천막투쟁 23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법 악법 저지 여의도 천막투쟁 37일, 국회의원사당 본청 계단앞 투쟁 천막에서 **35일간 조원진 공동대표가 노숙투쟁**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신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우리공화당은 천막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25일 여의도로 이어지는 천막 투쟁 속에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9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의도 천막투쟁을 해준 우리 당원 동지해, 진실이 이기는 세상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아스팔트로 나왔고, 당을 창당했고, 네 번째 겨울을 투쟁의 현장에서 맞았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정치 혁명은 저 불

2020년 1월 1일 아침, 국회의원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중인 당 지도부와 당원들 ▶



공수처·연동제 가동 더 폭주하는 좌파독재

조작탄핵으로 정권 찬탈, 문재인과 토착빨갱이들 좌파세력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민을 선동하며, 결국 거짓과 조작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고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정치기득권과 연정내각제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고 국민을 내팽개친 결과, 이제는 정권에 이어 국회까지 좌파독재정권에게 침탈당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로 문재인 씨를 비롯한 토착빨갱이들은 탈원전이라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연방제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6분기 최저투자예 아파트 혹은 상가의 공실률이 최고를 기록해도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국가경영에 대한 생각이 없고, 오히려 재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몰고, 재산 평준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토지공유제는 공산주의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 토착빨갱이들은 공공연하게 토지공유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토지공유제를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좌파독재정권에게 장악당한 국회, 입법권 무력화 현재 입법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장악했습니다. 제1야당이 유명무실한 국회, 언제라도 여당과 군소 여당과 같은 **이념을 가진 좌파들이 손만 잡으면 제1야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태의 국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 중에서 입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좌파독재 악법 공수처법=게슈타포법=중국 공안법 중국에는 검찰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검찰, 경찰,公安 모든 부분을 검찰위원회가 중국의 주석 산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통제합니다. 지금 공수처법이 그러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정적을 제거할 수도 있고, 부정부패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에 선보고를 한다는 것은 검찰수사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독재조항입니다. 독소조항과 독재조항을 다 가진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제 사법부의 칼은 없고, **오로지 권력을 가진 문재인 씨만이 권력의 칼을 쓰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가동으로 좌파독재는 더욱더 폭주할 것이고, 이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좌파독식국회를 앞세워 내각제와 연방제를 포함한 체제전복의 헌법개약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쟁하는 정치인과 국민이 필요

필사즉생의 결기와 행동하는 애국심의 정치가 필요 좌파세력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용기 없고 무기력한 기득권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공산적화로부터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구출하겠다는 필사즉생의 결기와 행동하는 애국심만이 국민을 대신해서 좌파독재정권에 맞설 수 있습니다.

포는 새해 인사 福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건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3년간 싸워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2020년 정의가 승리하는 태극기혁명을 반드시 이루어 우리 선배들이 지켰었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합시다. 우리공화당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개혁, 대안정당으로 나아갑시다. 존경합니다.

이규택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태극기 혁명군과 우리공화당 당원 여러분! 새해에는 다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경자년은 큰 혁명과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4.15 총선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심판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빨리 석방해서 청와대로 원상복귀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이 혁명과업을 위해서 우리 태극기 혁명군과 우리공화당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혁명과업을 이룩합시다!

허평환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사랑하는 우리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금년 4.15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해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의 결정적인 걸림돌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1000일 넘게 구치소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4.15총선에서 우리공화당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원동지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유대한민국수호의 시대적 사명을 함께 완수하도록 합시다.

서석구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2020년 새해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 김정은·문재인 독재 퇴진, 탄핵배심심판,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태극기혁명, 트럼프 정부와 한미동맹강화의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상수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동지 여러분! 2019년 한 해 우리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 결연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많은 값진 성과들을 얻었습니다. 2020년에는 두 대표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도록 합시다.

통합은 정당 단일화가 아닌 가차·투쟁의 연대가 우선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의 통합만이 진정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작 탄핵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좌파독재정권을 타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파국민 모두가 연대투쟁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만이 우리는 좌파독재정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포는 새해 인사 福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의 붉은 태양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참사, 경제참사, 국방(통일)참사 등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의 안위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새해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하는 보수우파의 승리!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태우 **우리공화당 상근최고위원·태극기집회총괄본부장**
새해 경자년에는 우리공화당이 대동단결하여 대한민국 숨통을 끊는 게슈타포법 같은 공수처법을 원천무효화하는 총선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오직 대의명분으로 사즉생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문재인 주사파 일당 몰아내는 승리의 한해를 만듭시다.

김춘식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2020년. 희망한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석방과 총선 승리를 위해 다같이 노력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 바랍니다.

이주천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저무는 己亥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면 밝아 오는 庚子是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煉獄 속을 다녀 나와야 하는 뜨거운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己亥 歲暮를 뜨겁게 달구었던 연동비례제 선거법 파동과 공수처법 날치기 파동은 새해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새벽의 어둠이 지나면 밝은 해살이 비칩니다. 희망을 가지고 중단없이 투쟁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한근형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고되고 슬펐던 2019년이 가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외로워도 함께 가는 동지들이 있기에 이겨냈습니다. '니가 사명을 잊어도 사명이 너를 잊지 않는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누군가에게겐 고생길일지언정 우리에게겐 사명입니다. 이겨냅시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